

名馬의 심장된 韓 배터리… 페라리, Made by SK 장착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기술력 입증
단시간에 높은 출력내고 발열 해결
7.9kWh로 전기모드 최대 25km 주행

페라리도 자동차업계 전문화 물결에 동참했다.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는 국내 대기업인 SK이노베이션의 제품을 장착해 그 의미를 더 했다. 그 밖에 슈퍼카들도 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을 내놓으면서 산업계에 기대감을 가져다주고 있는 상황이다. 단, 중국산 배터리 업계 추격이 만만치는 않다.

페라리는 7일 서울 포시즌즈 호텔에서 첫 양산형 하이브리드 슈퍼카 'SF90 스트라달레'를 국내에 처음 공개했다.

페라리에서는 다소 작은 8기통 엔진을 탑재했으면서도 플래그십 자리를 차지한 첫 모델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4륜 구동도 페라리에서는 처음이다.

그럼에도 SF90이 페라리 90주년을 기념하는 대표 모델로 선정된 이유는 간단하다. 페라리의 어떤 모델보다도 강력한 성능을 가졌다 때문이다.



김광철 FMK 대표가 7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SF90 스트라달레(SF90 Stradale)'를 공개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SF90은 최고출력이 1000마력에 달한다. 780마력을 내는 4L(리터) 가솔린 엔진에 220마력을 내는 전기 모터 3개를 추가했다.

폭발적인 성능을 벼텨내기 위한 여유 노력도 병행했다. 흡기와 배기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로 인한 270kg 무게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무게 중심을 낮추고 소재 경량화와 역학 설계도 병행했다. 변속기도 새

로운 오일 배스 형식 8단 듀얼 클러치로 구동계 출력 손실을 최소화했다.

특히 배터리는 SF90을 개발하는데 주요 난제 중 하나였다. 하이브리드카가 강력한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수한 배터리가 필수인데, 현재 기술력으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있어서다.

페라리는 SK이노베이션을 선택했다. 단시간에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으면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가 7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SF90 스트라달레(SF90 Stradale)'를 공개하고 있다.

든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에 배터리를 공급 중이다. 포르쉐 플래그십은 아니지만, SF90과 달리 완전 전기차라는 점에서 기술적인 우월성을 뽐내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처음 내놓은 전기차 EQC에도 역시 LG화학 배터리가 숨어 있다.

미국 GM도 LG화학과 함께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세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중국 CATL도 후보에 올라 있지만, 기술 차이를 감안하면 LG화학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 종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량으로 보면 중국산 배터리가 월등하지만, 성능에서 국산 배터리에 밀리는 데에 고성능 제품에는 도입하기 어렵다는 평가"라며 앞으로도 국산 배터리 도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고 중국산 배터리가 경쟁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국 배터리 업계가 현지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하에 빠르게 기술력을 높여가고 있는데다, 낮은 가격을 앞세워 시장을 꾸준히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총성없는 전쟁… 'V4'-‘리니지2M’ 격돌

넥슨 V4

MMORPG 본연의 재미에 집중

엔씨소프트 리니지2M

인기 IP활용 시리즈… 이용자 기대

넥슨과 엔씨소프트가 11월 신작으로 승부를 겨룬다. 특히 양사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대작 타이틀을 두고 겨루는 경쟁이기 때문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넥슨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넥슨은 7일 넷게임즈에서 개발한 신작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V4'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정식 서비스는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돌입했다. 이용자들이 동시에 몰릴 것을 대비해서다.

V4는 엔씨소프트 출신으로 '리니지2', '히트' 등을 개발한 박용현 넷게임즈 대표가 2년여 간 개발을 주도한 게임이다. 다섯 개의 서버를 한 곳에 끓은 '인터넷서버'가 특징이다. 서버마다 두 개의 권역이 존재하는데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여러 서버를 오갈 수 있다. 대규모 전투 지휘가 가능한 '커맨더 모드'도 특징이다. V4는 모바일 기기 맞춤형 사용자 경험(UX)을 갖춘 커맨더 모드를 구현해 이 모드에서는 길드장이 전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6개 테마의 오픈 필드와 자산 가치를 지켜주는 '자율 경제 시스템'도 눈에 띈다. V4는 가격 제한이 없는 거래소를 운영한다. 이 거래소에서 이용자들은 스스로 가치를 매기고 자산을 평가할 수 있다.

넥슨 최성욱 IP4그룹 그룹장은 "지난 2년간 MMORPG 본연의 재미를 깊게 파고들어 V4만의 가치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PC에 버금가는 그래픽과 콘텐츠를 탑재한 V4를 통해 MMORPG



넥슨 'V4' 포스터.

/넥슨



리니지2M

/엔씨소프트

이용자 경험의 혁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V4는 출시 첫날 오후 2시 기준, 양대 마켓 인기순위 1위를 기록했다.

오는 27일에는 엔씨소프트의 기대작 '리니지2M'이 출시돼 V4와 경쟁을 펼친다. 특히 엔씨소프트는 V4의 사전 다운로드가 시작되자 리니지2M 출시일을 밝히며 이목을 끌었다.

리니지2M은 엔씨소프트의 PC MMORPG '리니지2'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개발한 모바일 MMORPG다. 지난 2017년 출시한 '리니지M' 이후 2년 반 만에 나오는 신작으로, 이용자의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실제 사전 캐릭터 생성 시작 후 11일 만에 110개 서버가 마감돼 지난 신규 서버 10개를 추가로 오픈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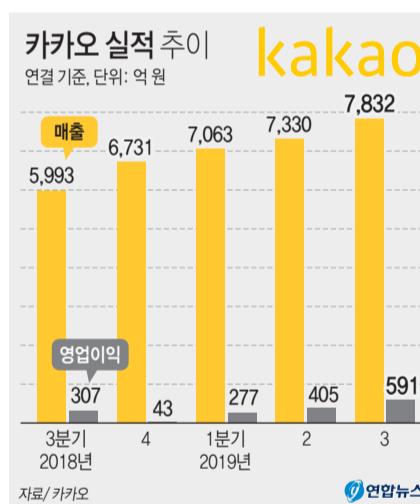
업계 관계자는 "그간 눈에 띠는 대작 출시가 없어 시장이 침체됐는데 연이은 모바일 게임 대작 출시와 경쟁을 통해 올 하반기 힐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이버, 퓨리오사AI에 후속 투자

〈AI 반도체 스타트업〉

네이버(주)의 기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D2SF가 퓨리오사AI에 후속 투자를 했다고 7일 밝혔다. 퓨리오사AI는 최근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글로벌 AI 칩 벤치마크 테스트 'MLPerf'에 참가해, 경쟁력 있는 성능 지표를 인정 받았다.

MLPerf는 구글, 바이두, 하버드, 스텐포드 등 유수의 기업 및 대학들이 주최하는 글로벌 AI 칩 성능 테스트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자체 개발한 AI 칩으로 이미지 처리, 언어 번역 등 정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일정 수준의 정확도를 유지해야하는 등 참여 조



드 확대 및 카카오톡 기반 메시지 사업의 견조한 성장으로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52% 성장한 1624억원을 달성했다.

포털비즈 매출은 광고비수기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8% 하락했으나, 광고 플랫폼 카카오모먼트 및 검색 광고 고

도화로 전년 동기 대비 9% 성장한 1261억원을 기록했다. 신사업 매출은 전분기 대비 22%,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623억원이다.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결제처 확대와 금융상품 기반 매출 증가, 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서비스 매출 증가 등 신규 사업의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된 영향이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432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했다. 유료 콘텐츠는 카카오페이지와 픽코마의 국내외 이용자 및 거래액의 성장세에 힘입어 매출이 전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52% 성장한 919억원으로 집계됐다. 뮤직 콘텐츠 매출은 멜론 기존 이용자에 대한 리텐션 강화와 프로모션 효율화 노력으로 전분기 대비 5%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515억원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위니아딤채

김치맛으로 웨드라마 제작

위니아딤채는 최근 유튜브 채널 '위니아 스토리'에 웨드라마 '인생의 맛 김치 시리즈'를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영상은 김치의 매운맛과 시원한 맛, 깊은 맛 등을 통해 20대 청년들의 인생을 담아 제작됐다. 3분 가량 짧은 드라마 형식으로, 20대들의 고민들을 주제로 삼았다.

1편 매운맛은 취업 과정, 2편 시원한 맛은 연애와 이별, 3편 깊은 맛은 사회 초년생 이야기로, 마지막에는 김치맛과 연결해 김치냉장고 '딤채'를 연상케 했다.

/김재웅 기자